2024.05.07

KIRI 리포트

일본, 우주보험 동향

| 글로벌 이슈 |

강윤지 연구원

요 약

2023년 일본 정부가 우주산업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일본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우주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음. 도쿄해상은 우주 관련 보험상품 개발 및 리스크 컨설팅을 지원하며 국제 우주보험 시장과의 접점을 구축하고 있음.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은 JAXA와 협력해 우주관광 보험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우주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현재 우주보험의 경우 하드웨어 인수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6월 일본 정부가 우주산업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일본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최근 우주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음

- 2023년 6월, 일본 정부는 향후 20년을 대비한 우주산업 기본방침인 '우주 기본 계획(宇宙基本計画)'을 발표함[1)]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이하 'JAXA')[2)]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우주산업 관련 기술 개발력을 강화하는데 목표가 있음
  - 우주산업을 일본 경제의 성장 산업으로 판단하고 2020년 4조 엔인 우주산업 규모를 2030년대 초까지 8조 엔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함
- 도쿄해상과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은 2022년부터 일본 최대 규모 우주산업 컨퍼런스의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음[3)]

○ 도쿄해상은 우주 관련 보험상품 개발 및 리스크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보험상품 공동 개발 등을 통해 국제 우주보험 시장과의 접점을 구축하고 있음

- 도쿄해상은 2022년 다양화·복잡화되는 우주산업 리스크에 대응하는 보험상품 개발 및 리스크 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하는 '우주 프로젝트'를 발표함[4)]
  - 인공위성 운용 및 로켓 발사, 우주 관련 리스크를 고려한 새로운 보험상품과 솔루션 개발,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과제 해결,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책 등을 포함함
- 도쿄해상은 2022년 영국 보험회사 비즐리(Beazly)와 공동 개발하여 '달(月)보험'을 출시했고, 무인 월면탐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본 스타트업 기업인 다이몬(Dymon)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5)]

1) 内閣府(2023. 6. 13), "宇宙基本計画"
2) 일본 총무성 및 문부과학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으로 법인격 조직 중 최대 규모이며 일본의 항공우주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임
3) UchuBiz(2022. 10. 6), "大手損保の宇宙ビジネス最前線-東京海上日動と三井住友海上の2社が説明"
4)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2022. 2. 24), "「宇宙プロジェクト」の始動～宇宙ならではのリスクに挑戦し、社会課題を解決～"

- 다이몬과 체결한 달 보험은 탐사선의 달 착륙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해 미션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월면까지의 운송비용과 탐사선 제조비용 등을 보장하며, 발사 실패 시에는 보장하지 않음
- 추후 약 100대의 탐사선이 발사될 예정으로 도쿄해상은 해외 보험회사와의 위험 분담을 통해 보험 제공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6]

• 도쿄해상은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스(Interstellar Technologies, 이하 'IST')[7]가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 발사 로켓 'ZERO'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제 우주보험 시장과의 접점 구축을 지원할 것을 밝힘[8]

○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은 JAXA와 협력하여 2022년부터 '우주관광 보험사업'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으며,[9] 최근 우주보험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우주여행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은 2015년부터 우주보험 담당 주재원을 해외 거점에 배치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인 스팍스(Sparx) 그룹의 '우주 프론티어 펀드' 출자 및 월면 착륙선 위험 보상을 위한 달보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월면 탐사 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보상하는 달보험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2022년 11월 발사되는 달 착륙선인 'HAKUTO-R 미션1'에 대한 달보험 계약을 체결함[10]

- 월면 탐사를 목표로 하는 'iSpace'와 달보험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 4월 민간 최초로 월면 착륙에 시도했지만 실패한 'iSpace'는 달보험의 보험금으로 37억 9,300만 엔을 수령했다고 밝힘[11]

•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은 ANA홀딩스, HIS 등과 연계해 우주공간에서나 지구로 귀환 후 발생한 신체 문제를 보상하는 우주여행보험을 개발하고 있음[12]

- 2023년 12월 기준 우주여행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없으며, 해당 보험은 준궤도 비행(Sub-orbital flight)[13] 우주여행자 대상의 보험으로 2030년경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우주보험의 경우 대규모 로켓 및 위성 발사와 관련된 하드웨어 인수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에는 데이터와 관련된 클라우드 및 AI 등의 소프트웨어가 우주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14]**

• 최근 민간 주도의 위성 인터넷, 우주 빅데이터, 우주여행, 행성 탐색 등의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며,[15] 보험산업은 수익원 확대를 위해 위성 데이터 중심의 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16]

---

5)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2022. 4. 21), "月面探査ミッションを支援する「月保険」の開発"
6) 日本経済新聞(2023. 7. 20), "大手損保、宇宙保険で100兆円市場に照準 ノウハウ競う"
7) '우주산업을 일본의 산업으로'라는 목표하에 2019년 시작된 파트너십 사업이며 가입 기업 및 단체, 대학은 2023년 11월 기준 45곳임
8)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2022. 9. 27), "誰もが宇宙に手が届く未来の実現に向けてインターステラテクノロジズのパートナーシップ「みんなのロケットパートナーズ」に参画"
9) JAXA(2022. 7. 20), "三井住友海上とJAXA、「宇宙旅行保険事業」に関する共創活動を開始"
10) 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2022. 10. 7), "月への航行・着陸を補償する世界初「月保険」を ispace と開発"
11) 日本経済新聞(2023. 8. 18), "ispace、「月保険」で37億円受領 月面着陸できず補償"
12) 日本経済新聞(2023. 12. 19), "三井住友海上、宇宙旅行保険を開発 ANAやHISと連携"
13) 비행체가 우주와 대기권 경계지역인 고도 100km 지점으로 상승한 뒤 하강하는 비행으로 미국에서는 버진 갤럭틱과 같은 준궤도 비행 우주여행의 개인용 투어가 실시되고 있음
14) Sompo Institute Plus(2022. 3. 31), "宇宙ビジネスとビッグデータ、損害保険の概況"
15) NikkeiBP(2023. 3. 27), "ハードだけじゃない、ソフトウエア技術者にも門戸広がる宇宙スタートアップ転職"
16) Sompo Institute Plus(2023. 10. 31), "広がる宇宙ビジネスと日本企業（2）リモートセンシングの可能性"